

## 마태오 복음서 2장

### 동방 박사들의 방문

1.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sup>1)</sup>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1) 마태오는 유대인 백성의 참 임금이며 구원자이신 분께서(1,21;2,2) 불러 일으키게 될 권력자들과의 갈등을 예고한다. 그리고 마태오는 또 선택된 민족의 권력자들이 배척한 분을 이방의 박사들, 곧 다른 민족들이 경배함을 가리킨다.<sup>2)</sup>

2) 박사들은 점성술이나 해몽에 능통한 현인과 사제들을 가리킨다.<sup>3)</sup>

2.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sup>4)</sup>
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 곧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4.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헤로데는 백성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공적으로 책임이 있는 이들을 모두 소집한다. ‘수석 사제들’은 전직 대사제들을 비롯하여 대사제 가문에 속한 사제들을 가리킨다. ‘율법 학자’들은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율법 해설가이다. 나중에 이 두 집단이 예수님께 대항한다(21,15-17).<sup>5)</sup> 그러나 마태오는 수석 사제들을 백성의 원로들과 더 자주 결합시킨다. 이는 예수님을 둘러싼 비극적인 사건들의 책임자는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이다.<sup>6)</sup>

---

1) 루카 1,5 :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 조에 속한 사제로서 즈카르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3,1 :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십오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래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래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2)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61쪽, 각주 1.

3) 위, 각주 2.

4) 민수 24,17 :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5) 마태 21,15 :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고, 또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불쾌해하며,

6)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62쪽, 각주 4.

5.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sup>7)</sup>

6.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sup>8)</sup>

‘보살피다,’는 본디 ‘양을 치다’를 뜻하며, 마태오는 이로써 베들레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7.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8.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9.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10.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고대인들은 별은 영웅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별은 하느님의 배려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임금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그분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sup>9)</sup>

11.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 교부들은 “황금”은 왕권을, “유향”은 신성을, “몰약”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보았다.<sup>10)</sup>

2) 이 예물은 동방 박사들의 신앙고백이다. 곧 참 하느님이시며 참사람이신 예수

---

7) 요한 7,42 :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8) 1역대 11,2 : 전에 사울이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미카 5,1 : 그러나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9)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62쪽, 각주 10.

민수 24,17 :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10)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62쪽, 각주 11.

그리스도께서 수난과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리라는 신앙고백을 상징한다.

12.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sup>11)</sup>

꿈을 통해서 하느님의 명령이 내리고, 깨어난 뒤에는 그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

## 이집트로 피신하시다

13.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sup>12)</sup>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sup>13)</sup>
14.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5.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이집트는 당시 위험을 피하는 곳이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험에서 보호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 헤로데가 아기들을 학살하다

16.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다.

---

11) 1열왕 13,9 :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려졌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12) 1열왕 11,17 : 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인 몇몇 에돔 사람들과 더불어 이집트로 달아났다. 그때에 하닷은 어린 소년이였다.

2열왕 25,26 : 그리고 나서는 칼데아 사람들이 두려워,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과 군대의 장수들이 일어나 이집트로 갔다.

예레 26,21 : 여호야킴 임금의 모든 용사와 모든 대신과 더불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찾았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야는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갔다.

13) 창세 31,24 : 그날 밤 꿈에 하느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46,2-4 : 하느님께서 밤의 환시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네 아버지의 하느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요셉의 손이 네 눈을 감겨 줄 것이다.”

사도 16,9 :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성경 외에 기타 문헌에는 학살 기록이 없다. 그렇지만 헤로데의 잔인한 성격으로 보아서 충분히 가능성이 일이다.<sup>14)</sup>

17.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8.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통하는 통곡 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며 요셉과 벤야민의 어머니로서, 북이스라엘인들의 조상으로 추앙받는다. 베들레헴은 전통적으로 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라마는 유배로 끌려가는 이들의 집합 장소이다.<sup>15)</sup>

## 이집트에서 돌아오시다

19.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20.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sup>16)</sup>

21.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sup>17)</sup>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떠나,

23.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sup>18)</sup>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 예수님께서 “나자렛 사람”이라는 말은 구약의 어디에서 인용했는지 알 수가 없다. 사도행전에서도 “나자렛 사람”이라고 부른다(2,22 참조). 마태오는 그리스 말 나조레오스나와 관련이 있거나, 나지르인(판관 13,5.7 ;16,17 참조) 곧 ‘하느님께 봉헌된 이’,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 그 자체’를 가리키고 싶

14)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63쪽, 각주 15.

15) 위, 각주 16.

16) 탈출 4,19 :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네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17) 아르켈라오스는 기원전 4년에서 기원후 6년까지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매아를 다스렸다.

18) 마르 1,9 :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루카 1,26 :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어 했을 가능성도 있다.<sup>19)</sup>

- 2) 나자렛은 시골이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다.  
하느님이신 분이 당신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

19)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63쪽, 각주 18.